

천연기념물 한란 꽃대 꺾임, 굴파리가 원인 < 환경 > 유관산업 < 기사본문

 bosa.co.kr/news/articleView.html

2012년 9월 7일

국립수목원, 한란 주위에 망 치는 방법 제안

천연기념물 제 191호로 지정되어있는 제주의 한란이 꽃을 피기 전에 꽃대가 꺾이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다.

국립수목원과 문화재청, 서귀포시청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한란의 꽃대 꺾임 원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난(蘭) 종류의 꽃대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굴파리가 그 원인으로 확인됐다.

한란(*Cymbidium kanran* Makino)은 난초과 보춘화속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환경부 법적 보호 1급이고 산림청희귀식물 멸종위기(CR)에 속하는 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및 남해 도서지역에 매우 제한적인 자생지가 확인되고 있는 진귀한 식물이다. 한란은 11 - 12월에 꽃을 피우는데 향기가 그윽하여 인기가 높아 무분별한 채집으로 멸종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립수목원이 제주도 한란의 생태동영상 촬영 중 꽃대가 꺾여 꽃을 피우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예전부터 일부 보였지만 작년에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번에 확인된 한란 가해 곤충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보고된 적 없는 굴파리 일종으로 한란 꽃대굴파리(가칭)임이 밝혀졌다.

국립수목원의 제주도 현지 조사 결과 한란꽃대굴파리(가칭)는 한란 뿐 아니라 보춘화, 금난초의 꽃대나 자방을 가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이 굴파리에 의한 천연기념물 한란의 피해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어 우선 굴파리가 한란 꽃대를 가해하지 못하도록 한란 주위에 망을 치는 방법이 가장 유효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 자생지에서 꽃이 피어있는 한란<사진촬영: 양형호>

손인규 기자 ikson@bosa.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